

# 지안난(江南) 중의학가의 성취와 공헌

저지안(浙江)中醫學院 허르언(何任) 씀

한국한의학연구소 의사문헌연구실 신 순 식 옮김

[제 요] : 본문은 지안난(江南)<sup>2)</sup>의 저명한 中醫學家 및 그들의 주된 성취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통계를 내고 탐색을 했으며, 상당한 史料와 醫籍의 분석연구를 거쳐서, 中醫理論體系가 충실해지고 풍부해지며, 학술사상이 창조되고, 진단치료의 경험이 향상되고, 중국의 의학과 의 교류 등 방면에서 지안난 중의학가의 위대한 성취와 걸출한 공헌을 종합했다.

[핵심낱말] : 지안난 중의학가

지안난은 지역개념인데, 역사의 변화발전속에서 적지않은 변경을 하였다. 탐색의 편리를 위해서 본문에서 가리키는 “지안난(江南)”지역은 최근의 辭書에서 제기한 법에 따라 즉 오로지 지안쑤(江蘇)[주로 쑤난(蘇南)] 저지안(浙江) 및 지안시(江西) 안후에이(安徽)의 지안(江) 저(浙)에 가까운 구역을 경계로 정한 것을 가리킨다. 이 범위를 가지고 연구한 훌륭한 것으로는 바로 마오진홍(繆進鴻)교수가 말한 “츠양지안(長江) 三角洲(或은 長江 - 치엔탕지안(錢塘江) 三角洲라고 일컬어진다)를 하나의 전체로 보고 研究하는 것이, 지안(江) 저(浙) 루(瀟) 완(皖) 各自의 孤立地로 研究하는 것에 견주어 더욱 意義가 있는데, 더욱 實際에 부합

된다”(以長江三角洲(或稱長江 - 錢塘江三角洲)爲一整體來研究, 比江浙瀟皖各自孤立地研究更有意義, 也更切合實際)[『教育研究』 1991年第1期]가 있는데, 시야가 넓고 분석도 객관적 이랄 수 있다.

## 저명한 중의학가의 개괄적인 상황

중 의학을 연구검토하는데는 중국 문화학술의 源과 流를 벗어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중 의학가를 연구검토하는데는 中國醫學史 史料와 분리될 수가 없다. 中國醫學史에 관한 전문적인 저작물은 탕(唐) 시대 간종뱌(甘宗伯)의 『名醫傳』에서 비로소 시작되는데, 이는 역대의 명의를 찬술한 것으로 각 醫人마다 하나의 傳을 두고 뒤에 비평과 칭찬을 두었다. 송(宋)시대 자오쯔후아(趙自化)의 『名醫顯秩傳』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통달한 醫官에 의해서 지어진 것 같다. 그런데 兩書는 이미 散佚되어 그 상세한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세상에 전하는 송시대 저우서우중(周守忠)의 『歷代名醫蒙求』는 자주 後人에게 증명되고 있다. 명(明)시대에 츠잉이(程伊)의 『醫林史傳』 등의 저술이 있는데 책이름만 있을뿐 原書는 보이지 않는다.

1) 浙江中醫學院 何任. 「江南中醫學家的成就與貢獻」. 『浙江中醫雜誌』 1993: 1月號: 1-4.를 번역한 것이다.

2)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의 중국음에 대한 우리 말 표기는 씨케이 시스템(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349-361.)에 의한 것이다.

리리엔(李濂)의 『醫史』만이 오히려 볼 수 있는데, 그 책은 옛날 부터 내려오는 명의의 傳記를 수집한 것으로 『左傳』의 이허(醫和)에서부터 위엔(元)시대 리카오(李杲)에 이르기까지 史傳에서 보이는 것이 55人이고, 또 諸家의 文集에서 수집하고 채택된 것이 10人이며, 저자 자신이 지은 것은 6人으로 모두 71人이다. 명(明) 칭(淸) 시기에 나온 『古今醫統大全』 『醫學入門』 等書는 모두 名醫資料나 姓氏를 나열해 놓았고; 더우기 칭시대 캉시(康熙)년간에 정부에서 편찬한 『古今圖書集成』 안에는 『醫術名流列傳』 14권이 있다. 이는 위로는 후양제(黃帝)로부터 아래로는 칭시대 初에 이르기까지 歷代名醫 1,300여인을 수록해 놓았는데, 史傳과 각 省 府 縣 등의 地方誌 자료를 수집하여 완성한 것으로 정말로 전대미문의 巨著이다. 근대에 들어 醫學史의 저작물은 꽤 많아졌다. 通史는 잠시 논하지 말자. 역대 저명한 의가의 성취와 공헌을 나열하여 略述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이 여러책을 열거할 수 있다: 『中國歷代名醫傳』(編者 츠엔멍라이(陳夢賚))은 正傳이 206人이고 덧붙여 보이는 자가 100여인인데, 60여인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서술이 상당히 簡要하고 계통적이다. 『中醫各家學說』(5판교재)은 각각 커다란 醫學流派 및 그의 주

된 대표인물을 한(漢)시대에서부터 칭(淸)시대 末까지 모두 43인을 나열해 놓았다. 역대의 史書와 醫籍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세상에 명의로 소문난 중의학가는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자의 총 수는 약 200여인이고 그 중 특히 두드러지게 중대한 공헌을 한 자는 약 40여인이나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본문은 『中國歷代名醫傳』을 근거로 삼아, 저우(周)시대의 삐엔취에(扁鵲)에서부터 비롯하여 칭시대 末 탕종하이(唐宗海)에 이르기까지 모두 206명의 저명한 중의학가에 대해 그들의 본적을 살펴보니, 그 중에 지안난에 본적을 둔 자가 129명으로 62.6%(그 중에 본적을 고찰할 수 없는 자가 6명으로 지안난에 본적을 둔 것으로 계산하지 않았다)를 차지했는데, 자세한 것은 <표 1>을 보라.

이 129명의 지안난 중의학가중에서 가장 성취와 공헌이 있는 자는 개인의 성숙하지 못한 견해에 따라 52명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表二를 보라. 이를테면, 鑿眞(탕·지양쑤 양저우(揚州) 사람) 우탕(칭·지양쑤 후에이인 사람) 등은 中國外 학술교류에 걸출한 공헌이 있고 혹은 지안난 溫病學派의 형성에 대해 공헌이 극대할지라도 지역의 경계로 해서 모두 나열하지 않았다.

<表 1>

朝 代	著名中醫學家(名數)	江南本籍(名數)	比率(%)
저우 한 진(周 漢 晉)	10	1	10.0
난베이츠아오(南北朝)	7	4	57.1
웨이 탕(隋 唐)	12	1	8.3
송 진(宋 金)	39	13	33.3
위엔(元)	18	11	61.1
명(明)	52	43	82.7
칭(淸)	68	56	82.4
總計	206	129	62.6

〈表 2〉

朝 代	姓 名	本 籍
진(晉)	거홍(葛洪)	지양쑤(江蘇) 쥐르용(句容)
난베이츠아오(남북조)	타오홍징(陶弘景)	판양(丹陽) 워링(秣陵)(지금의 난징(南京))
송(宋)	치엔이(錢乙)	저지양(浙江) 린안(臨安)
	선쿠어(沈括)	저지양(浙江) 치엔탕(錢塘)
	츠언옌(陳言)	저지양(浙江) 칭티옌(青田)
	주퐁(朱肱)	저지양(浙江) 우싱(吳興)
	쉬수웨이(許叔微)	지양쑤(江蘇) 이정(儀征)
	츠언쯔밍(陳自明)	지양시(江西) 린츠우안(臨川)
위엔(元)	주전형(朱震亨)	저지양(浙江) 이우(義烏)
	꺼치엔쑤(葛乾孫)	지양쑤(江蘇) 쑤저우(蘇州)
	왕뤄(王履)	지양쑤(江蘇) 웨이산(尾山)
밍(明)	따이쓰퐁(戴思恭)	저지양(浙江) 푸지양(浦江)
	러우잉(樓英)	저지양(浙江) 샤오산(蕭山)
	쉬에지(薛己)	지양쑤(江蘇) 우시옌(吳縣)
	쑤이웨이(孫一奎)	안후에이(安徽) 시우닝(休寧)
	황여우즈(方有執)	안후에이(安徽) 서시옌(歙縣)
	왕컨탕(王肯堂)	지양쑤(江蘇) 진탄(金壇)
	마오시용(繆希雍)	지양쑤(江蘇) 츠양수(常熟)
	장지에벤(張介賓)	저지양(浙江) 사오싱(紹興)
	자오쉬엔커(趙獻可)	저지양(浙江) 인시옌(鄞縣)
	우여우싱(吳有性)	지양쑤(江蘇) 우지양(吳江)
	리중쯔(李中梓)	상하이(上海) 쑹지양(松江)
	장웨이츠옌(張遂辰)	저지양(浙江) 항저우(杭州)
칭(淸)	위츠양(喻昌)	지양시(江西) 신지옌(新建)
	장즈충(張志聰)	저지양(浙江) 치엔탕(錢塘)
	쉬벤(徐彬)	저지양(浙江) 지아싱(嘉興)

朝 代	姓 名	本 籍
칭(淸)	츠영린(程林)	안후에이(安徽) 서시엔(歙縣)
	여우이(尤怡)	지앙쑤(江蘇) 우시엔(吳縣)
	장뤼(張璐)	지앙쑤(江蘇) 우지앙(吳江)
	츠잉꾸어펑(程國彭)	안후에이(安徽) 서시엔(歙縣)
	커친(柯琴)	저지앙(浙江) 츠시(慈溪)
	예궈이(葉桂)	지앙쑤(江蘇) 우시엔(吳縣)
	쉬에쉬에(薛雪)	지앙쑤(江蘇) 우시엔(吳縣)
	우치엔(吳謙)	안후에이(安徽) 서시엔(歙縣)
	쉬따츠운(徐大椿)	지앙쑤(江蘇) 우지앙(吳江)
	선진아오(沈金鰲)	지앙쑤(江蘇) 우시(無錫)
	웨이즈시우(魏之琇)	저지앙(浙江) 치엔탕(錢塘)
	위린(余霖)	지앙쑤(江蘇) 츠앙저우(常州)
	자오쉬에민(趙學敏)	저지앙(浙江) 치엔탕(錢塘)
	왕스시웅(王士雄)	저지앙(浙江) 하이닝(海寧)
	왕타이린(王泰林)	지앙쑤(江蘇) 우시(無錫)
	궈이궈시웅(費伯雄)	지앙쑤(江蘇) 우진(武進)
	루마오시우(陸懋修)	지앙쑤(江蘇) 위엔허(元和)(지금의 쑤저우(蘇州))
	우스지(吳師機)	저지앙(浙江) 치엔탕(錢塘)
	마원즈(馬文植)	지앙쑤(江蘇) 우진(武進)
	장나이시우(張乃修)	지앙쑤(江蘇) 츠앙저우(常州)
	위징허(余景和)	지앙쑤(江蘇) 이싱(宜興)
	저우쉬에하이(周學海)	안후에이(安徽) 지엔떠(建德)
	츠언뽕궈(陳秉鈞)	지앙쑤(江蘇) 칭푸(青浦)
	장서우이(張壽頤)	지앙쑤(江蘇) 지아땡(嘉定)
	윈수위(惲樹鈺)	지앙쑤(江蘇) 우진(武進)
	차오뽕장(曹炳章)	저지앙(浙江) 사오싱(紹興)

## 주된 성취와 공헌

지안난 의가는 다음의 몇 가지 면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 즉, 중의이론체계를 충실하고 풍부하게 했으며 학술사상이 독창적이고 진단치료경험을 향상시켰고 중국내외의 의학 교류를 원활하게 했다.

### 1. 중의학의 이론체계가 풍부해지고 학술사상이 독창적인데 대하여

중의는 중국의 전통의학이고 중국인민이 오랜동안 질병과 싸워서 얻어낸 경험의 종합이다. 중의약학이론체계는 역대 의학가가 의료실천속에서 끊임없이 승화하고 정리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춘추(春秋) 시대에 탄생하여 중의학이론들을 다져놓은 『내경』과 한(漢)시대 의학자인 장중징(張仲景)이 理·法·方·藥을 『傷寒雜病論』에 집약해 놓은 것은 중의학 변증논치의 진단치료원칙에 기초를 세웠다. 역대 지안난 의가의 주된 공헌은 주로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1. 『내경』이론에 대한 闡釋 보충. 『내경』이 후 동한(東漢) 때에 만들어진 『難經』에서 중의의 “命門相火”論이 시작된다. 명(明) 때의 장지에벤(張介賓) 자오시엔커(趙獻可)는 이 이론을 闡述할 때에 제출한 “上行至腦” “泌其津”의 견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부신피질호르몬 뇌하수체의 기능과 지극히 유사한데, 이는 『내경』이론에 대한 보충이고 발전이다. 장씨는 또 『類經』을 지었는데, 이는 『내경』을 분류하고 注를 넣은 것인데 조리정연하고 꽤 발휘한 곳이 많아 巨擘라고 일컬을 만하다. 그는 또各科에까지 해박하여 그가 지은 『景岳全書』의 내용은 풍부한데 이는 中醫史上 보기드문 것이다. 그의 溫補學說은 중의학 의료임상에서 深遠한 영향을 주었다.

2. 『傷寒論』에 대한 연구 창조. 지안난 의가는 『상한론』의 변증논치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 闡發하였는데 이 經典著作의 내용을 크게 풍부하게 했다. 예를들면, 주공(朱肱)이 지은 『南陽活人書』, 허수웨이(許叔微)가 지은 『傷寒九十論』, 황어우즈(方有執)와 위츠양(喻昌)이 『千金翼方』의 기초위에서 발전시키고 독창성을 발휘하여 지은 『傷寒論條辨』과 『尚論篇』은 후세사람들에게 “탁월하게 앞 사람을 뛰어넘어 알고 있다”(卓識超越前人)라는 칭송을 받았다. 후양(黃) 위(喻) 두 의가의 영향아래에서 따르는 자가 다투어 일어나고 학술상의 논쟁이 열렬했다. 예컨대, 왕컨탕(王肯堂) 장뤄(張璐) 장웨이츠언(張遂辰) 장즈충(張志聰) 선진아오(沈金鰲) 등은 각각 체험해서 『傷寒論』에 주를 달았고, 『상한론』에 대한 연구를 크게 추동시켰다. 그 중에서 커친(柯琴)이 지은 『傷寒來蘇集』과 여우이(尤怡)가 지은 『傷寒貫珠集』은 거의 후세에 『傷寒論』을 익히는 자의 필독서가 되었다. 그들은 전국 의학과 하나의 정체를 조성하여 『傷寒論』의 이론체계와 임상응용을 연구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3. 중의 사대가의 이론이 완전하게 되고 풍부해지다.

中國醫學史의 진위엔(金元)사대가인 리우완쑤(劉完素) 장충정(張從正) 리까오(李杲) 주전형(朱震亨)의 이론은 지안난 의가에 이르러서 훌륭하게 계승되고 발전되었다. 예컨대 주전형의 이론은 후세 滋陰派의 처음을 열어놓았고 또 단시(丹溪)학과를 형성하였다. 주씨의 이론은 자오따오전(趙道震) 자오리앙런(趙良仁) 마이쓰공(戴思恭) 왕뤄(王履) 등에게 전해져 진일보하게 크고 빛나게 발양하였고 위투안(虞搏) 왕룬(王綸) 왕지(汪機)는 뒤에 이를 우두머리로하여 더욱 그의 이론에 부채질을 하게 되어 명 시대에는 그의 학문이 성행하게 되었으니 그의 영향이 날로 더욱 확대되었고 심지어는 중국외로까지 전해져 일본 등의 의

가가 숭상하게 되었다. 명 시대에는 약간의 다른 지안난 의가가 깊이 臟腑病機를 연구하는데 리까오 등의 諸家에게서 법을 본받아 溫補藥을 잘 쓰는 특색을 형성하였다. 쉬에지(薛己) 쑤이웨이(孫一奎) 장지에벤(張介賓) 자오차옌커(趙獻可) 라중쯔(李中梓) 등의 제가와 그들의 門人의 추숭아래에서 점차로 온보학과를 형성하여 사대가의 이론을 풍부하게 했다.

4. 溫疫病理論의 창조와 발전. 전염병을 탐색해들어가는 중에 지안난 의가는 감히 다른 사람보다 앞섰고 걸출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명 시대 末에 溫疫病이 유행했는데 그 세가 매우 창궐했다. 우여우싱(吳有性)은 그의 풍부한 임상경험과 매우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이런 류의 질병의 병인은 일종의 공기의 접촉으로 전염되고 “입과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從口鼻而入) 雜氣라고 지적하고는 『癘疫論』을 지어 그의 관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것은 『내경』이래 “邪는 皮毛에서부터 침입해 들어간다”(邪從皮毛侵入)는 이론에 대한 중대하게 새로운 것이고 치료방법상에서도 매우 큰 변혁이다. 청 시대 치엔룽(乾隆)년간에 온역이 다시 한번 유행하였다. 위린(余霖)은 임상에서 얻은 견해에 따라 『疫疹一得』을 짓고 우여우싱의 부족을 보충했으며 “清瘟敗毒飲”이라는 名方을 만들었는데, 이는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도 乙型腦炎을 치료하는 유효한 方劑이다. 그들의 학설은 뒤에 오는 온병학설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지안난의 명의인 예웨이(葉桂)는 溫熱病에 대하여 독특한 체험과 창조적인 견해를 얻어 『溫熱論』을 지었고, 그와 같은 시대 같은 마을에 살았던 명의인 쉬에쉬에(薛雪)는 『濕熱條辨』을 지어 온병이론을 더욱 완전하게 하였다. 청 시대 말엽 왕스시웅(王士雄)은 또 『溫熱經緯』을 지었는데, 이는 제가의 醫說을 모으고 또 새로운 발취가 있었다. 그 당시 溫病學(溫疫 등의 熱性傳染病을 포함)은 이미 발전이 성숙되어 있었고 지안난

의가는 여기에 대해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 二. 藥物學과 製藥化學에 대한 공헌 및 『肘後救卒方』의 가치

역대 지안난 의가는 본초저작에 대한 정리를 통해서 약물학을 매우 크게 발전시켰고; 煉丹術의 진보는 제약화학에 대해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마도 방제학상의 성취는 『주후구졸방』을 대표로 볼 수 있다.

1. 본초학 저작에 대한 정리와 충실. 증약학의 경전저작인 『神農本草經』이 쓰여진 이후 허우한(後漢) 싰꾸어(三國) 리양진(兩晉)에서부터 난지(南齊)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약물품종이 점차로 늘어났고 藥物性味 약물효과가 이어서 발견되었다. 난베이초아오(南北朝)의 타오홍징(陶弘景)은 본초학의 발전에 대해 거대한 공헌을 했다. 그가 지은 『名醫別錄』은 『신농본초경』에 실리지 않은 약물인데 365종에 달하고 있고 뒷날에 또한 이를 기초로하여 『神農本草經集注』가 쓰여져 이를 더욱 충실히 하고 사용에 딱 들어맞게 되었다. 『신농본초경』은 타오씨가 계승하고 완전하게 하여 중국 의학에 대한 영향이 매우 깊어졌다.

2. 煉丹과 제약화학의 시작. 煉丹術과 제약화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先秦의 方士는 통치자의 長生不老의 욕망에 영합하기 위해 연단술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는 많은 제약화학의 실험이 있었다. 예컨대, 진(晉)시대의 거홍(葛洪)이 지은 『抱朴子』의 「內篇」20권중에서 「金丹」 「仙藥」 「黃白」 등편은 연단을 전문적으로 논하였다. 예를 들면, 硫化汞은 熱을 받으면 수은으로 분해되고 수은과 硫黃은 끊임없이 열을 가하면 또한 硫化汞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이미 기술하고 있다. 당시 연단에서 쓴 원료는 10여종에 달하는데 제약화학의 단서를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것은 탕 시대에 통행되었던 輕粉으로 疥를 치료한다든

지 紅升丹으로 毒을 뽑아낸다든지 白降丹으로 瘡疽를 치료한다든지 하는 등의 의료내용을 전개시킨 것으로 기초를 닦게 되었다.

3. 『肘後救卒方』의 가치. 仝은 또한 『주후구졸방』을 지었는데 간단히 『肘後方』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여기에는 약간의 醫史資料가 있어 늘 후세의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있다. 이 책의 두드러진 점은 어떤 전염병의 인식에 있어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예컨대, 여기서 서술되어 있는 “瘡瘡”은 세계에서 天花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이다. 또 “尸注” “鬼注”는 結核病에 해당하는데 본 병에 대해 低熱 慢性消耗症狀를 기술한 이외에도 명확하게 본병에 대해 “滅門”이라는 전염성을 지적하였다. 책속에는 恙蟲病과 유사한 질환의 發病區域 임상특징 예방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본인의 연구에 견주어 볼 때 200년이나 빠르다. 기타 疥蟲에 대한 발견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다. 이외에도 仝은 序文속에서 또한 “濟貧”의 醫德思想을 반영했다. 주장하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藥”(易得之藥)을 가려 써서 “가난한 사람들이 들뜬에서 곧 처리할 수 있게”(貧家野居所能立辦) 하고 더우기 『주후구졸방』으로하여금 驗 便 廉의 진귀한 특색을 지니게 했다.

### 三. 기타 저명한 의가의 학술성취

지양난 의학가는 위에서 서술한 탁월한 공헌이외에 기타 학술상의 성취도 매우 불만한데 크게 중의약학술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크게 뛰어난 자를 들면 다음과 같다.

치엔이(錢乙): 字가 종양(仲陽)이다. 各 科에 통했는데 특히 小兒科에 정통했다. 세상에 전하는 『小兒藥證直訣』은 중의 소아과의 鼻祖이다.

츠언언(陳言): 자가 무자이(無擇)이다. 질병의 원인을 內因 外因과 不內外因으로 개괄하여 “三因學說”을 만들어 장중정의 病因學說과

는 다르다.

츠언쯔밍(陳自明): 자가 리양후우(良甫)이다. 그가 지은 『婦人大全良方』 『外科精要』 등은 부인과와 외과에 꽤 공헌이 많다. 후세에 표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濟陰綱目』의 祖本이 바로 『부인대전양방』이다.

꺼치엔쑤(葛乾孫): 자가 커지우(可久)이다. 그가 지은 『十藥神書』에 기재되어 있는 虛勞 吐血을 치료하는 十方은 지극히 정미로운 뜻을 담고 있어 명 시대이래 모든 의가가 많이 칭찬했다

먀오시용(繆希雍): 자가 종츠운(仲醇)이다. 의약의 義理가 모두 독창적인 견해가 있다. 그가 지은 『先醒齋醫學廣筆記』 『神農本草經疏』 등은 모두 의가의 善本이 되고 있다.

쉬뻬(徐彬): 자가 종커(忠可)이다. 그는 『原治初編』 『金匱要略論注』 『傷寒論注』 등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金匱』注本은 현존하는 가장 이른 全注本이다.

우치엔(吳謙): 자가 리우지(六吉)이다. 太醫院判을 지냈고 치엔룽(乾隆)때에는 제왕의 분부를 받들어 『醫宗金鑒』을 主編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여전히 의사라면서 읽고 익혀야 하는 책이다.

쉬따츠운(徐大椿): 자가 링타이(靈胎)이다. 그가 지은 『傷寒類方』 『神農本草經百種錄』 『難經經釋』 『醫學源流論』 『蘭臺軌範』 등은 古方을 쓰는데 장점이 있는 것으로 復古派의 대표적 인물이다.

왕타이린(王泰林): 자가 쉬까오(旭高)이다. 『退思集類方歌注』 『醫學獨言』 등은 肝病에 대해 연구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으로 肝 치료

의 집대성이라고 할만하다.

웨이즈시우(魏之琇): 자는 위형(玉橫)이다. 일찌기 『名醫類案』을 校刊하여 『續名醫類案』을 編著해냈다. 그가 만든 一貫煎은 肝陰不足을 치료하는 良方이다. 웨이(魏)씨는 醫術 詩才의 경지가 모두 높아 옛 의가중에서 보기도 문 자이다.

웨이퍽시웅(費伯雄): 자가 지우즈(九芝)이다. 평소 장종징을 존승하고 『상한론』을 표창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여겼다. 溫病을 傷寒 陽明病의 범주에 넣었으니 독창적인 견해를 갖추고 있다. 저서에는 『世補齋醫書』가 있다.

우스지(吳師機): 자는 상시엔(尙先)이다. 外治法으로 百病을 치료하는 것을 널리 보급시켰다. 그가 지은 『理淪駢文』은 치법중에 색다른 면이 있는데 매우 환자의 환영을 받았다.

마윈즈(馬文植): 자가 페이즈(培之)이다. 外科로 가장 유명하다. 꾸앙쉬(光緒)간에 일찌기 츠시(慈禧)太后를 치료하여 나온 적이 있다. 저서에는 『外科傳薪集』 등이 있다.

저우쉬에하이(周學海): 자가 츠잉즈(澄之)이다. 疑難症을 치료하는데 탁월하고 기이한 효과가 있으며 여러 종류의 저작물이 있다. 또 여러 종의 의서를 평하고 주를 달며 校刊을 하여 중국의학에 큰 공헌을 했다.

장서우이(張壽頤): 자는 산레이(山雷)이다. 당시는 西學東漸의 시대로 중의는 날로 배척당하였다. 장씨는 敎學으로 진흥을 도모하여 일찌기 저지양(浙江) 란시(蘭溪)中醫專門學校 교무주임을 맡아 문하생이 많았다. 저서에는 『難經滙注箋正』 등 의서 35종이 있다. 청 시대 말 중화민국 초의 저명한 중의교육가요 이론가였다.

원수위(惲樹鉦): 자는 티에차오(鐵樵)이다. 중의에서 서방문화를 접촉하여 中西醫를 겸통한 인재로 일찌기 1927년 당국의 “廢止中醫案”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저서가 매우 많은데, 뒷날에 『樂庵醫學叢書』 등으로 편집되었다.